coupang newsroom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1. 7. 3.

화재 발생 직후 근무자 전원이 신속히 대피했으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김동식 소방령님과 유가족께도 거듭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은 화재 발생 이후 빠른 대처로 119 신고 뒤 5분 만에 280명 근무자 전원이 어떠한 피해도 없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은 또한 진화 완료 이후 지역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쿠팡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도를 가진 소수가 제기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쿠팡이츠는 갑질 이용자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이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쿠팡은 일부 이용자의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각계에서 제기한 개선점들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위너는 광고비 중심의 출혈경쟁을 막고 '배송, 고객평가, 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12만 명이 넘는 쿠팡의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은 아이템 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 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지만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언론이 제기하는 비판도 늘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쿠팡 가족과 고객의 신뢰 보호를 위해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쿠팡이 많은 언론과 소송 중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쿠팡이 지금까지 언론에 제기한 소송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이는 수차례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쿠팡은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쿠팡은 택배 물류업계 최초로 직고용, 주 5일 52시간제, 연차휴가 15일 이상 보장, 산재 포함 4대 보험 보장, 분류 전담인력 4400명 별도 채용, 쿠팡케어(4주간 유급 건강관리 프로그램), 현장 직원 주식 부여 등으로 택배 물류업계 근로환경을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더욱 안전하고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팎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 장덕준 님 유족과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당사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사실
“콘크리트 사이의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화재를 키웠다"	쿠팡의 덕평 물류센터 내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층간 콘크리트 사이에 스티로폼이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화재를 키웠다는 전문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덕평물류센터 내벽은 내연성 자재인 글라스울이 사용되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쿠팡 노동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화재로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과 직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즉각 시행 중입니다.** • 덕평물류센터 직원 전환배치: 화재로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직원의 98.3%를 수도권 20여 곳의 다른 물류센터로 전환배치를 완료했으며(7월 2일 기준), 최대한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동시에 셔틀버스 운영 • 주민피해지원센터 운영: 주민들이 손쉽게 화재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와 현장 접수처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피해 내용은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6월 22일 오픈)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덕평1리 주민 전원에게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 및 전문 의료진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 (7월 2~3일, 5일 출장검진 / 7월 20-21일 개별 상담) • 임직원 환경정화 활동: 쿠팡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덕평리 인근 지역을 방문해 분진을 수거하고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장소와 거주지, 농경지 등을 청소
“보안요원이 화재 신고를 묵살해 초기 대응이 늦었다”	**화재 신고 5분 만에 근로자 280명 전원이 부상없이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덕평물류센터의 보안 담당업체인 조은시스템은 당시 보안요원이 화재 신고를 묵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KBS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이해 수차례 직접 인터뷰 의사를 밝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쿠팡 천안 목천 물류센터 조리원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은 쿠팡이 아닌 동원홈푸드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조리보조원은 동원그룹 산하의 동원홈푸드 소속으로, 식당의 운영 및 근로자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동원홈푸드에게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방송에서 제기된 유해물질 노출과 전혀 무관하며, 이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조사 및 경찰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래 참고기사 참조)

* 참고기사: “쿠팡 조리원 사망, 작업장 내 유해물질 탓 아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